

2019 국별 진출전략

벨기에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2019 벨기에 총선 및 EU 의회 선거로 정치·경제 정책 변화 예상	4
나. 브렉시트 반사이익 아직 약해, 지난해 최대 수혜자는 프랑스	4
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증가 기대	5
라. 중국 알리바바, 벨기에 리에주에 유럽 물류거점 설립 계획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6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6
2. 시장 분석	12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2
나. 수출	12
다. 투자진출	15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17
가. 교역	17
나. 투자	19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0
III. 진출전략	21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1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2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26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28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30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1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하락) 경기 사이클 하강, 보호무역주의 등 외부 요소로 인한 성장둔화 예상

- 벨기에 중앙은행은 2018년 6월, 글로벌 경기 사이클 하강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와 미-중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감소로 2019년 벨기에 GDP 성장치를 1.5%로, 인플레이션은 1.9%로 전망함
 - 이는 최근 유가상승 추세가 반영되어 그 전에 발표된 IMF(1.7%, 1.8%), EU 집행위(1.7%, 1.6%), OECD(1.7%, 1.8%) 전망치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남
- 민간소비는 2017년 대비 1.4% 상승, 공공지출은 0.9% 상승이 전망되나 경제둔화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11.2	11.2	11.3	11.4	11.4	11.4	11.4
명목GDP	십억 달러	521.1	531.9	455.4	468.1	495.2	554.9	563.5
1인당 명목GDP	달러	43,640	44,588	45,375	46,346	47,463	49,075	50,463
실질성장률	%	0.2	1.4	1.4	1.5	1.7	1.7	1.5
실업률	%	8.5	8.5	8.5	7.9	7.1	6.4	6.1
소비자물가상승률	%	1.2	0.5	0.6	1.8	2.2	1.7	1.8
재정수지(GDP대비)	%	-3.1	-3.1	-2.5	-2.5	-1.2	-1.1	-0.9
총수출	백만 달러	312,700	310,900	253,400	274,600	301,100	346,200	357,900
(對韓 수출)	"	1,586	1,831	1,431	1,073	1,662	N/A	N/A
총수입	"	321,500	317,900	251,900	273,400	300,900	347,100	358,500
(對韓 수입)	"	2,241	2,455	2,023	2,426	2,809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8,800	-7,000	1,500	1,200	200	-1,000	-600
경상수지	"	-1,600	-4,700	-700	500	-800	-2,800	-70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33	1.33	1.11	1.11	1.13	1.22	1.2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4,736	5,038	4,549	4,772	6,496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334	5,218	4,650	5,000	5,486	N/A	N/A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EIU, 한국무역협회(대한수출입통계), 벨기에 연방은행(직접투자, 유로 달러 환산, 해당 연도 평균환율 적용)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19 벨기에 총선 및 EU 의회 선거로 정치·경제 정책 변화 예상
- 벨기에, 브렉시트 반사이익 약한 것으로 드러남
-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증가 기대
- 중국 알리바바, 벨기에 리에주에 유럽 물류거점 설립 계획

가. 2019 벨기에 총선 및 EU 의회 선거로 정치·경제 정책 변화 예상

- 2019년 5월 26일 벨기에 총선과 함께 유럽 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벨기에는 물론 EU 차원의 커다란 정치·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 벨기에 총선은 5년마다 진행되며, 현 정부는 지난번(2014년) 총선의 경우, 135일 뒤에야 우익 성향 4개 정당의 연정으로 내각을 구성한 바 있음
 - 이번 선거에서도 주요 득표 정당 간 연정 합의여부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10월 14일*에 진행된 벨기에 지방선거에서 좌익 성향의 녹색당(Ecolo-Groen)**이 득세함에 따라 총선 이후 연정 합의 가능성이 우려됨
 - * 같은 날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 룩셈부르크 총선이 진행되었으며 3개 지역 모두 환경당(녹색당)의 약진이 두드러짐
 - ** 유럽 내 녹색당은 이민자에게 우호적이며, 환경 이슈에 민감하고, EU 통합 노선을 지지함
 - 이와 함께 새로이 구성되는 EU 의회도 이민, 환경, 세제 이슈에서 정책 변화가 예상됨

나. 브렉시트 반사이익 아직 약해, 지난해 최대 수혜자는 프랑스

- EY가 발표한 2018 투자매력도 평가에 따르면, 2017년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FDI 프로젝트를 유치한 국가는 영국(1,205건)이며,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3위 프랑스(1,019건, 31% 증가)로 밝혀짐
 - * 주요국 : 2위 독일(1,124건, 6% 증가), 4위 네덜란드(339건, 17% 감소), 6위 스페인(237건, 23% 감소), 8위 벨기에(215건, 8% 증가)
 -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 있는 투자처임을 보여주며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과 혁신산업 유치 정책이 시기적절하고 주효했음을 보여줌
 - 브렉시트 반사이익을 노렸던 벨기에는 전년 대비 투자 프로젝트 8% 증가로 유럽 평균 10%보다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임
 - 그러나 영국 내 기업들이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으로 아직 법인 이전 등 주요 투자결정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2019년이 브렉시트 반사이익 효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증가 기대

- 2016년 8월 벨기에 정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7월 현행 33.9%에서 2018 ~ 2019년 29.5%, 2020년 25%로 순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힘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최대 20%까지 인하)
 - 벨기에 법인세율은 인근국인 네덜란드(25%), 영국(20%), 스페인(25%), 독일(29.7%), 스위스(18%) 및 EU 평균(22%)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간 높은 임금수준과 함께 벨기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됨
 - 벨기에 정부는 이 같은 법인세 인하 추진으로 향후 국내기업 및 외투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라. 중국 알리바바, 벨기에 리에주에 유럽 물류거점 설립 계획

- 2018년 5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가 글로벌 스마트 물류 허브지로 세계 6대 도시*를 검토 중이며, 유럽에서는 벨기에 리에주(Liege)를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힘
 - * 알리바바는 글로벌 72시간 배송을 목표로 산하 물류기업 차이나오의 물류기지 후보로 항저우, 홍콩, 쿠알라룸푸르, 두바이, 모스크바, 리에주(벨기에)를 선정함
 - 리에주는 벨기에 동부, 네덜란드와 독일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벨기에 제3도시로 항공, 육상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물류기지로서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음
 - 이후 7월 알리바바 마윈 주석이 벨기에를 방문, 샤를 미셸 총리와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통관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프로젝트 진행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 6대 도시 중 가장 먼저 프로젝트 윤곽이 드러난 홍콩(38헥타르, 연 배송물량 1천만 개, 항공 카고 170만 톤, 총 투자규모 15억 달러) 수준을 볼 때, 동 프로젝트 확정 시 벨기에 물류, 유통산업에 큰 영향*이 예상됨
 - * 벨기에 유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유통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배송 시간 및 비용 단축, 저렴한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유럽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타격, 타오바오, 알리페이 등 알리바바 서비스 사용자 확대로 유럽 내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재편 등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연방국가로 프랑스어권(왈로니아), 네덜란드어권(플란더스) 지역별 상이한 문화, 체제
- GDP의 70%가 서비스 산업으로 부품소재, 첨가물 등 중간재 생산에 특화
- 정부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 제약 부문에 집중 투자

가. 정치 환경

□ 연방국가로 프랑스어권, 네덜란드어권 지역 간 긴장관계

- 왕위를 세습하는 입헌군주국(2013년 현왕 필립(Philippe) 왕위 계승)으로 연방정부, 지방정부(브뤼셀, 플란더스, 왈로니아), 언어공동체(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로 구성되며 각각 고유의 행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음
 - (연방정부) 외교, 국방, 사회보장, 통화, 세제, 안보 및 치안, 사법 분야
 - (지방정부) 지역경제, 외국의 지방당국과 경제, 과학, 문화적 외교, 지역 고용 정책, 토지 관리 정책, 과학 기술 개발 정책, 도로, 항구 등 공공사업
 - (언어공동체) 교육, 문화, 복리후생(장애인, 탁아소, 청소년 보호 등)을 관리
- 지방정부별 언어와 문화가 상이하고 경제력에 차이가 있어 프랑스어권인 왈로니아(남부)와 네덜란드어권인 플란더스(북부) 사이에 자치권 확대 요구 등 대립 다수 발생
 - * 경제적으로 부유한 플란더스가 왈로니아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 왈로니아는 2016년 EU-캐나다 무역협정(CETA) 비준 과정에서 지역의 농업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비준에 반대한 바 있음
 -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서도 수출의존도가 높고 영국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플란더스 지역과 그보다 낮은 왈로니아 간 입장 차이가 존재
- 총 22개 정당 중 주요 정당은 N-VA, Open VLD-MR, CD&V-CDH, SPA-PS, Ecolo-Groenlink
 - 2014년 벨기에 총선에서 네덜란드어권 민족당(N-VA)이 하원 150석 중 33석을 차지하며 제1정당으로 자리함

- 총리는 프랑수아르권 자유당 MR 대표 샤를 미셸(Charles Michel)로 역對벨기에 총리 중 최연소이자 (38세) 최초의 프랑수아르권 자유당 계열 출신임
-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 플란더스의 자치권 요구 등이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임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 벨기에 중앙은행은 2019년 GDP 성장률을 1.5%, 인플레이션 상승율을 1.9%로 전망하고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1.4%, 공공지출은 0.9% 상승이 예상되나 경기둔화를 상쇄하기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 배경에는 글로벌 양적완화 정책 종료로 인한 구조적 기업투자 감소, 보호무역주의로 통상 불확실성 증대 및 수출 감소가 있음
 - * 벨기에에는 전통적인 가공무역 국가로 화학, 제약,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있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음

□ 물가상승률

- 2016년(1.8%), 2017년(2.2%) 상승세가 2018년(1.7%)에 다소 둔화되었으나 글로벌 양적완화 정책 종료로 2019년(1.8%)에 다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몇 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 GDP 대비 벨기에 정부부채는 2016년 106%, 2017년 103.8%, 2018년 102.3%로 감소추세를 보임
-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전년(-2.5%) 대비 -1%로 적자폭이 감소했으나 2018년 현상 유지 후 2019년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1.8%로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

- 2016년(7.9%)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
 - * 2017년(7.1%), 2018년(6.4%), 2019년(6.1%)
- 2017~2018년 고용상황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개선, 기업의 사회보장 지출부담 축소 등에 따른 노동비용 감소로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투자진출 동향

- 2017년 기준 유럽 내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규모로 8위(1위 영국, 2위 독일, 3위 프랑스 등)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 이래로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소폭 회복하는 양상을 띠
- 2017년 기준 벨기에 외국인 투자건수는 총 215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개수는 5,838개로 전년 대비 +76% 증가함
- (산업별) 2017년 기준 1위 영업·마케팅(69건), 2위 제조업(67건), 3위 물류(49건), 4위 R&D(17건) 순으로 나타남
* 자료원: Ernst&Young - Baromètre de l'Attractivité belge 2018
- (주요 투자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동 국가들이 전체 외국투자의 70%가량을 차지함
- (지방별 실적) 3개 지방 중 플란더스가 투자유치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있음. 2017년 기준 플란더스는 투자유치 건수에서 벨기에 전체 투자의 62.3%를 차지(134건)했으며, 왈로니아는 20.4%(44건), 브뤼셀 지방은 17.2%(37건)를 기록

다. 산업 환경

□ 서비스업 비중이 77%이며, 화학, 부품소재, 물류, 의료바이오가 중점 산업

- 높은 임금, 천연자원 부재 등으로 2016년 기준 농어업(1%), 제조업(17%)의 비중은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77%로 매우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보임
- 전통적으로 중계무역과 가공산업이 발달한 무역국가이며 특히 안트워프는 석유화학, 커피, 철강 등의 유럽 물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선물가격 결정 기준 시장임
- 인구 1,100만 명이 조금 넘는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소비재는 자체적인 생산 대신 수입에 많이 의존함. 제조기업 중에는 중간재, 첨가물 등 가치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기업이 많은 편이며 대표적인 산업으로 의료바이오, 화학, 자동차, 물류산업을 들 수 있음

□ 화학산업

- 벨기에 최고 수출산업으로 전체 벨기에 수출의 1/3을 차지함. 생산품의 75%(1,200억 유로 상당)를 수출하며, 한국과 벨기에의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에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등이 포함되는 등 양국 화학산업 간 교류가 매우 활발한 편임. 주요 기업으로 Solvay, Umicore 등이 있으며 모두 한국에 진출 중임

- 성장동력은 기업의 투자와 R&D 노력도 있지만 벨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음. 2017년 기준 화학산업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21.7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벨기에 전체 제조업 R&D 투자의 30%를 차지함

□ 물류산업

-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등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내륙 연결 네트워크가 발달,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물류 노하우로 다수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서 전 세계 160개국 중 3위를 차지함. 특히 국제선적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벨기에의 물류산업 경쟁력을 보여줌
 - * 물류성과지수 : 국가별 통관(Customs), 물류인프라(Infra), 국제선적(International shipment), 물류역량(Logistics competence), 추적성(Tracking), 적시성(Timeliness) 등 6개 항목 평가(한국은 2016년 24위 기록)
- Ceva Logistics(세계 5위권 포워딩 업체), Katoen Natie(종합 물류창고업체), SEA Invest(벌크화물 전문 저장창고 업체) 등 세계적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낙후된 내륙항, 운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기회복과 함께 물류 비즈니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벨기에의 대표 항구인 안트워프항은 물동량 기준 유럽 2위(1위는 로테르담, 3위는 함부르크)로 총 항구면적 1만 2,068ha, 항구 내 17개 터미널에 총 610만㎡ 규모의 화물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 2017년 기준, 안트워프항 물동량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2억 2,365만 톤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냄

□ 자동차산업

- 물류여건을 기반으로 성장한 유럽 내 자동차 조립기지
 - 벨기에의 자동차산업은 외국 자동차 기업의 수출용 조립생산 기지로 성장함. 현재 서유럽 자동차 조립 규모 6위로 자리매김함. 연 약 1백만 대를 생산하며, 생산품의 90% 이상을 수출함. 수출품 중 일부는 제부르지항을 통해 원격지로 수출됨
 - 전체 자동차산업 매출규모는 2015년 1,168억 유로, 2016년 1,269억 유로, 2017년 1352억 유로로 증가추세이며,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70만 7,369대임
 - 자동차 시장은 폴크스바겐, 볼보, PSA(푸조·시트로엥) 등 유럽 자동차기업이 장악하고 있음. 2018년 1~9월 기준 한국산 자동차는 벨기에 시장에서 총 3만 225대가 판매됨.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현대(1만 8,468대, 점유율 4.05%), 기아(1만 1,757대, 점유율 2.58%), 쌍용(855대, 점유율 0.19%) 순으로 판매됨

- 벨기에 정부의 강력한 자동차산업 투자유치 의지
 - 2015년 독일 차량제조사 Audi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기차 모델 생산계획을 발표함. 이는 총 6억 유로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저렴한 노동력이 매력인 주요 후보국 스페인과 헝가리를 제치고 벨기에가 프로젝트를 따냄. 벨기에 연방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벨기에로 끌어들이기 위해 총 1억 유로의 지원 패키지를 Audi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 동 투자결정으로 벨기에는 직접고용 2천 명, 간접고용 6천 명 창출을 예상하며, 첨단산업 유치에 따른 연구인력 양성을 기대함

라. 정책·규제 환경

□ EU, 역외산 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 2018년 7월 18일 EU 집행위는 역외산 철강재 23개군 품목에 7월 19일부로 200일간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다고 공표함(규정 2018/1013)
 - 이번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역내 산업보호 및 미국 관세부과(6월 1일)에 따른 해외 철강재의 유럽 전향 방지가 목적으로, 최근 3년간 역내 수입량을 참고하였으며 종료일은 2019년 2월로 예상됨
 - 집행위가 기존에 진행하던 세이프가드 조사는 연말(12월 26일)까지 계속되며 최종 결과는 늦어도 2019년 초 발표될 것으로 보임
 - 세이프가드는 선착순(first-come-first-served basis)* 수입쿼터(TRQ) 형식으로, 국별 쿼터가 아닌 전 세계 쿼터이며 기준 물량까지는 기존 관세가 적용되고, 기준 물량 초과 시 25%의 관세가 부과됨
 - * 선착순은 세관 신고 시 필요서류를 제출한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함
- (적용 제외) 유럽 경제지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개발도상국 중 역내 수입 점유율 3% 이하 국가
 - EU가 지정한 개발도상국 중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함
 - 이밖에도 이미 유럽향으로 선적된 품목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7월 19일 기준 선적되어 유럽으로 운송되고 있고, 목적지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 (대상품목) 철강재 23개군 총 268개 품목
 - 당초 28개군 품목이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이었으나, 최근 5년간 수입물량이 급증하지 않은 5개군 품목은 잠정 조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말까지 지속될 조사에 대상품목으로 유지됨
 - * 조치대상 제외품목(5개) : Stainless Hot Rolled Quarto Plate, Grain-oriented Electrical sheet, Railway Material, Other Seamless tubes, 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Finished Bars

□ EU, 역외산 알루미늄 제품 수입감시제도 시행

- 2018년 4월 26일 EU 집행위는 역외산 알루미늄 제품 수입감시제도를 시행한다고 공표함(규정 No.2018/640)
 - 집행위는 제도 시행 배경으로 중국 등 역외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으며 역내기업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밝힘
 - 전 세계 알루미늄 품목 가격은 2011~2016년간 약 37% 감소했으며, EU 역내 수입규모는 2013년 710만 톤 → 2017년 910만 톤으로 28.1% 증가하고 가격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역내 제련소는 2008년 총 26개소였으나 현재는 16개소만 운영 중이며, 일부는 폐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 수입감시제도는 약 2년간(2018년 4월 27일~2020년 5월 15일) 진행되며 HS 코드 7601,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 761699 품목에 대해 시행됨
 - 동 제도로 EU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 수입 시, 별도 서류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함(서류는 수입업체 신청일로부터 5일 내 발급됨)
 - 서류에는 수입자 정보, 제품정보, 중량, CIF 밸류, 수입자 선언문구 등이 기입되어야 함
 - (적용 제외)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순수입 중량이 2,500kg 미만인 화물은 동 규정에서 제외됨
 - EU 회원국은 당해국으로 수입된 수입량 및 수입액을 집행위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수입현황 분석 후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EU, 자동차 CO₂ 배출기준 2021년 대비 2030년 35% 감축 계획

- 2018년 10월 9일 EU 회원국은 환경장관회의에서 2030년까지 자동차 CO₂ 배출기준을 2021년 대비 35% 감축하는 안을 가결했으며, 향후 집행위, 유럽의회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EU의 2021년 CO₂ 배출 허용기준은 KM당 95g이며, 35% 감축 시 2030년에는 KM당 61.75g이 될 것으로 보임
 - * 역내 평균 판매대수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연평균 CO₂ 배출량 한도는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임
 - EU의 CO₂ 배출 목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높으며, 수년 전부터 완성차 기업의 단계별 CO₂ 배출 목표를 규정하고, 이를 미준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음
 -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완성차 기업이 생산 모델 가운데 전기차 등 CO₂ 저배출 차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 구성할 경우 일정 비율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고, 그만큼 CO₂ 절감 목표 미달 수치를 허용한다고 밝힘

2. 시장 분석

- 지역별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연방국가로 인근국 특성을 보유하여 테스트마켓 혹은 동반진출에 용이한 시장임
- 내륙과 해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물류기지로 적격이며 유럽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용이함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시장

- 벨기에는 연방정부로 브뤼셀, 왈로니아는 프랑스어, 플란더스는 네덜란드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일부 지역은 독일어를 사용함. 이에 따라 지역별 문화와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 행동양식도 상이함. 아울러 브뤼셀 지역은 외국인 거주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 다국적 성향을 띠며
 - 트렌드와 소비성향은 해당 지역언어 사용 인근국(예: 왈로니아-프랑스)과 유사하나, 대체로 벨기에 주변국을 섞어 놓은 듯함. 따라서 유럽 진출 시 테스트마켓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며, 주변국 시장에 진출경험이 있다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음
 - 제품 패키징 및 온라인 서비스는 보통 프랑스어·네덜란드어가 병기되어 있고, 간혹 독일어도 병기되어 있음

□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을 활용한 유럽의 물류기지로 적격

-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등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내륙 연결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으며, 3대 주요항(안트워프, 제부르계, 겐트)을 통한 해상 운송과의 연계가 훌륭함
 - 벨기에 내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Toll)를 징수하지 않아 운송에 상당한 이점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중계무역이 발달하여 물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최근 낙후된 내륙항, 운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기회복과 함께 물류 비즈니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나. 수출

- 2017년 전년 대비 9.6% 증가한 3,011억 달러를 수출함. 2015년 급감한 교역량(수출 -18.4%, 수입 -20.7%)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임

[벨기에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출	310,900	253,400	274,600	301,100
수입	317,900	251,900	273,400	300,900
수지	-7,000	1,500	1,200	200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수출

- 교역의 76%가량이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륙별로 살펴봤을 때 유럽(74.2%), 아시아(7.4%), 미주(6.8%), 아프리카(3.5%) 순으로 역내 수출비중이 절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EU 역내국가 중에서도 이웃국가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교역량이 매우 높음

[벨기에 상위 10대 국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6	2017	증감률
1	독일	65,989 (16.5)	71,345 (16.5)	8.1
2	프랑스	61,100 (15.3)	63,991 (14.8)	4.7
3	네덜란드	44,714 (11.2)	51,743 (12)	15.7
4	영국	35,382 (8.8)	36,255 (8.4)	2.4
5	이탈리아	20,621 (5.1)	21,099 (4.9)	2.3
6	미국	23,212 (5.8)	20,996 (4.8)	-9.5
7	스페인	10,499 (2.6)	11,865 (2.7)	13
8	폴란드	7,918 (1.9)	9,240 (2.1)	16.6
9	중국	7,729 (1.9)	9,144 (2.1)	18.3
10	인도	9,015 (2.2)	8,988 (2)	-0.3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원: WTA

- 품목별 수출

[벨기에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코드	2016	2017	증감률
1	자동차	87	45,442 (11.4)	49,697 (11.6)	9.3
2	의약품	30	41,939 (10.5)	43,227 (10.1)	3
3	광물성연료	27	27,566 (6.9)	35,993 (8.3)	30.5
4	기계	84	29,231 (7.3)	30,442 (7)	4.1
5	플라스틱	39	27,046 (6.7)	29,676 (6.9)	9.7
6	유기화합물	29	31,037 (7.7)	28,936 (6.7)	-6.7
7	귀금속	71	18,779 (4.7)	17,554 (4)	-6.5
8	철강	72	13,258 (3.3)	17,390 (4)	31.1
9	광학	90	13,898 (3.4)	14,653 (3.4)	5.4
10	전기기기	85	13,865 (3.4)	14,580 (3.3)	5.1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원: WTA

-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중간재 생산과 중계무역이 강점으로 주요 수출품목에서 그 특성을 살피볼 수 있음. 1위는 자동차로 2017년 한 해 총 496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의 11.6%를 차지함
- 벨기에 내 생산 자동차는 90% 이상이 수출되며 지리적 여건상 육로, 해로로 차량 운송이 용이함
- 2위 의약품(10.1%), 3위 광물성연료(8.3%), 4위 기계(7%), 5위 플라스틱(6.9%) 등은 중간재 생산과 관련됨. 이들 상위 5개 품목은 전체 벨기에 수출의 43.9%를 차지함

□ 수입

[2017년 벨기에 상위 10개국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6	2017	증감률
1	네덜란드	63,097 (16.6)	69,980 (17.2)	10.9
2	독일	51,554 (13.6)	56,241 (13.8)	9.0
3	프랑스	35,872 (9.4)	38,579 (9.4)	7.5
4	미국	30,131 (7.9)	29,156 (7.1)	-3.2
5	영국	18,080 (4.7)	19,667 (4.8)	8.7
6	중국	16,298 (4.3)	16,938 (4.1)	3.9
7	아일랜드	16,568 (4.3)	16,592 (4)	0.1
8	이탈리아	14,759 (3.8)	14,530 (3.5)	-1.5
9	러시아	8,365 (2.2)	10,491 (2.5)	25.4
10	일본	9,274 (2.4)	9,934 (2.4)	7.1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원: WTA

- 수출과 마찬가지로 역내로부터 수입이 70%가량을 차지함. 아시아로부터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한해 벨기에가 가장 많이 제품을 수입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총 699억 달러를 수입하며 전체 수입의 17.2%를 차지함. 그 뒤로 독일(562억 달러), 프랑스(385억 달러), 미국(291억 달러), 영국(196억 달러) 순으로 수입함
- 품목별 수입
 - 수입품목은 수출품목과 유사함. 최다 수입품목은 자동차로 2017년 한 해 총 532억 달러를 수입하며 전체 수입의 13.1%를 차지함. 그 뒤를 이어 광물성 연료(11.9%), 의약품(8.5%), 기계(8.1%), 유기화합물(7.5%) 등의 제품을 주로 수입함

[벨기에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코드	2016	2017	증감률
1	자동차	87	48,698 (12.8)	53,253 (13.1)	9.3
2	광물성 연료	27	37,906 (10)	48,309 (11.9)	27.4
3	의약품	30	34,942 (9.2)	34,714 (8.5)	-0.6
4	기계	84	31,187 (8.2)	32,928 (8.1)	5.5
5	유기화합물	29	30,773 (8.1)	30,782 (7.5)	0.03
6	플라스틱	39	17,168 (4.5)	19,396 (4.7)	12.9
7	전기기기	85	16,945 (4.4)	17,856 (4.3)	5.3
8	귀금속	71	17,689 (4.6)	15,080 (3.7)	-14.7
9	철강	72	9,551 (2.5)	12,841 (3.1)	34.4
10	광학	90	12,386 (3.2)	12,691 (3.1)	2.4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원: WTA

다. 투자진출

□ 투자진출 동향과 특이사항

- 벨기에는 인구 1천만 명의 작은 시장으로 투자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육상, 해상 물류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중계무역, 가공무역을 위해 진출함
 - 브뤼셀의 경우, EU 의회와 집행위가 위치하여 로비 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관업무 사무소가 진출해 있고, 파견 외교공관 및 대표부가 180여개에 달해 관련 비즈니스(부동산, 회계, 법무, 통역, 컨벤션 등)가 성장함
- 이와 같은 특성으로 스위스 경제연구소(KOF)의 2017년 글로벌화 지수(Index of Globalization)에서 벨기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계 3위를 차지하며 개방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됨
 - 벨기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으며, 세계도 국내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음. 2017년 기준 벨기에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약 70%가 외국기업임

□ 주요국 투자진출 동향

- (중국) P5 알리바바 리에주 물류센터 설립계획 참조
- (일본) 2018년 7월, EU-일본 EPA(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비준절차 진행 중으로 향후 일본 기업의 유럽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통상 베네룩스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주로 벨기에에 기반을 두는 것이 특징이며 중장기적으로 전 유럽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많은 일본 기업들이 벨기에를 거점으로 삼는 경향이 높음
- 서유럽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 다국어 구사인력 확보용이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 주로 판매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으나, Toyota와 Daikin의 경우 벨기에에 유럽 본부와 더불어 생산 및 R&D도 적극 수행하고 있음

[참고] 주요 산업별 글로벌 기업 신규 프로젝트 리스트

업종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2017년, 2018년 주요 동향
항공	프랑스	Thales Alenia Space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이탈리아 합작 유럽 최대 인공위성 제조사. 유럽 우주국 발사체 Ariane 5 관련 생산 • Charleroi, Leuven에 이미 공장이 있으며, 이번 Hasselt 지역에 위성 태양광패널 공장 설립 예정 • 총 투자 규모 2천만 유로
자동차	독일	AUDI (폴크스바겐)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뤼셀 공장에서 전기차 모델 생산 • (2018) SUV Q6 E-tron, (2019) e-tron Sportsback • 총 투자규모 6억 유로
식품	캐나다	McCain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벨기에 감자가공기업 Lotus 인수 • 2018년까지 Leuze-en-Hainaut 지역에 1억 7,500만 유로 규모의 대규모 생산시설 설립 중
식품	미국	Mars food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밥 등 즉석요리 제조사(브랜드 Uncle Ben's) • Olen 지역 공장에서 제조, 안트워프 항구를 통해 35개국에 수출 중 • R&D 부문에 3,500만 유로 투자 예정
식품	미국	Burger King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버거체인 Quick 인수, 매장 일부를 버거 킹 매장으로 변경 및 신규 매장 설립 중 • 총 투자규모 1억 2천~1억 6천만 유로

자료원: 현지 일간지(Le Soir)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외국인 투자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관할함. 진출 시 국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여건 확인이 어렵고 3개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정보 취득이 가능함. 또한 지방별 언어가 달라 행정 처리 시 시간과 비용 소요
- 물가와 임금이 연동된 인건비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편임. 이러한 현상을 ‘Handicap salarial’ (임금 핸디캡)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벨기에 내에서 이러한 높은 임금 상승률이 외국인 투자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2012년 말, 과도한 임금 상승억제를 위해 2013~2015년 3년간 임금동결 정책을 시행했으나 2017~2018년에는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1.1%로 소폭 증가한다고 밝힘

- 벨기에 법인세율은 2017년 기준 외국인·내국인 기업 차별 없이 33.99%로 미국 35%, 프랑스 34.4%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
 - 벨기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세제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경우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28% 수준으로 EU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임
 - 특히 자기 자본으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R&D 활동 등 활발한 혁신활동을 하는 해외기업의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가. 교역

[한국의 對벨기에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출	2,455	2,023 (-17)	2,426 (19)	2,809 (15)
수입	1,831	1,431 (-21)	1,073 (-25)	1,662 (54)
수지	624	592	1,353	1,147

주: 괄호 안은 증감률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벨기에와 한국의 교역은 한국이 흑자를 보고 있음. 2016~2017년은 흑자폭이 이전 대비 두 배로 증가함
 - 2017년 기준, 한국은 벨기에로부터 16억 달러를 수입했으며, 28억 달러를 수출해 총 11억의 흑자를 기록(전년 대비 -128.5%)
-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한국의 對벨기에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코드	2016	2017	증감률
1	차량	87	677 (29.8)	755 (26.7)	11.5
2	기계	84	416 (18.3)	450 (15.9)	8.1
3	강철	72	233 (10.3)	446 (15.7)	91.0
4	플라스틱	39	273 (12)	346 (12.2)	27.0
5	유기화합물	29	134 (5.9)	183 (6.4)	36.2
6	광물성 연료	27	95 (4.1)	164 (5.7)	72.8
7	전자기계	85	85 (3.7)	99 (3.4)	16.7
8	공구	82	43 (1.9)	49 (1.7)	13.3
9	광학	90	42 (1.8)	45 (1.5)	5.3
110	고무	40	33 (1.4)	43 (1.5)	32.3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주요 품목은 차량, 기계, 강철,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등임
- 벨기에 석유화학 분야는 경제침체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없이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산업으로, 동 분야 관련 품목은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임
- 건설중장비의 경우, 현지 설비투자 수요증가로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출규모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성공사례

[수출 성공사례: Quartz Stone 연마용 패드 O사(벨기에 수출)]

- 벨기에 Quartz Stone 전문 제조사에 연간 10만 달러 수출
- 전 세계 경제호황에 따른 건설 및 인테리어 산업 성장으로 Quartz Stone 시장도 호황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對(韓수입증가율(2016)	對韓수입증가율(2017. 7)
680422	QuartzStone 연마패드	- 62.7%	70.4%

- 제품의 비교우위: 우수한 연마력을 통한 적은 흠집, 부드러운 표면 질감과 선명함, 광택 조절 가능성
 - Quartz Stone은 비교적 고가의 제품으로 동 제품 연마 시 표면에 발생하는 흠집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선명하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표면을 나타내는 것이 화두
 - 국내사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마력을 가진 제품을 자체 개발 및 제조
 - 동 산업의 선두주자인 다수의 이탈리아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도 눈에 띄는 우수한 연마력을 보임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없음
성약 소요기간	3개월(샘플테스트 일정 주선 및 진행 소요시간) 2014. 11(지사화 첫 가입, 첫 접촉)~2017. 9(성약 중단되었다가, 재성약 진행 중)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서치)
바이어 D/B	Kompass, TrenndsTop
유망전시회	Marmomacc / Stone 제품 관련 이탈리아 전시회(2019년 9월 / 1년 주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샘플테스트 중요) 제품의 연마력 수명 등 우수성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샘플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며, 잠재바이어사의 공장 폴리싱 라인 담당자로부터 샘플테스트 일정을 컨펌받는 것이 맹점(경쟁사 대비 강점 어필) 동 제품의 선두주자인 다수의 이탈리아 업체들이 이미 시장을 독식하는바, 국내사 제품의 긴 수명, 우수한 연마력, 적은 흠집 등 강점을 어필하여 품질이 더 우수한 대체제품으로 성약 가능성을 높임

○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한국의 對벨기에 수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코드	2016	2017	증감률
1	의약품	30	303 (18.9)	337 (19.1)	11.3
2	기계	84	147 (9.1)	166 (9.4)	12.7
3	플라스틱	39	120 (7.5)	142 (8)	17.8
4	차량	87	81 (5)	111 (6.2)	35.6
5	무기화합물	28	35 (2.2)	108 (6.1)	206.8
6	유기화합물	29	117 (7.3)	101 (5.7)	-13.6
7	광학	90	81 (5)	95 (5.4)	17.9
8	기타	99	104 (6.4)	92 (5.2)	-11.1
9	전자기계	85	69 (4.2)	75 (4.2)	9.5
10	강철	72	39 (2.4)	49 (2.8)	26.5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원: WTA

- 벨기에가 중간재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화학, 플라스틱 등 벨기에 주력산업 분야에서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2017년 對벨기에 주요 수입품목은 화학제품, 의약품, 승용차, 합성수지 제품 등이며, 이 중 화학 분야에 관련 품목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음. 그다음으로는 의약품이 많이 수입되었는데 의약품의 경우, 완제 의약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나. 투자

- 1968년 이후 한국의 對벨기에 투자건수(신고 기준)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까지 130건의 투자건수, 총 19억 2,737만 달러가 신고되었으며 실질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8억 9,072만 달러가 투자됨. 또한 2017년 12월까지 신규 법인 수는 총 37건인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투자는 1위 제조업(37건), 2위 도매 및 소매업(35건), 3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7건), 4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2건), 5위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2건), 6위 운수업(7건), 7위 부동산 및 임대업(4건), 8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건), 9위 건설업(2건)임

□ 주요 투자진출 실적

- 대표적으로 롯데제과를 들 수 있음. 2008년 6월 롯데제과는 벨기에 초콜릿 회사 길리안을 1억 500만 유로에 100% 지분 인수함(투자금 조달이 벨기에가 아닌 제3국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투자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음)

- 이밖에도 2010년에는 온라인 게임회사 NEXON이 투자전문 자회사인 NXBH B.V.B.A를 설립함.
그 외 주요 지상사로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등이 진출함

□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 (성공) 모비스 벨기에 유럽 부품 센터(Mobis Parts Europe-Belgium, MPE-BE)
 - 2016년 7월 현대모비스는 벨기에 베링겐(Beringen)시에 약 5만 6,198㎡(1만 7천 평) 규모의 중앙물류센터를 신축함. 이 중앙물류센터는 관할지역에 AS 부품을 공급하는 일반 물류센터를 담당할 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에 위치한 지역물류센터들로 부품을 배송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맡고 있음
 - 설립 후, 매일 AS 부품을 통합 배송받아 육로를 통해 동 센터들에 필요한 부품을 전달하게 됨. 이밖에 해상운송 역시 주 2~3회씩 진행해 재고부족 현상 없이 고객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벨기에 중앙물류센터는 각 센터별로 보유 중인 저순환 부품도 이관받아 통합적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실패) 한국 물류기업 A사, 물류센터 설립 시도
 - A사는 1980년대에 유럽 2대 항구인 안트워프 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고 벨기에에서 해상 물류 비즈니스를 시작함. 이후 많은 물동량으로 상당한 매출액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함. 그러나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유로존 경기침체로 인해 안트워프 항구 내 선박 출입이 현저히 감소하자, 해상물량도 이에 따라 크게 급감하여 안트워프 지사의 매출도 크게 감소함. 여기에 모기업의 경영사정 또한 심각하게 악화되어 결국 2013년 상반기에 철수함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국과 벨기에는 2017년 6월 벨기에 아스트리드 공주의 경제사절단 방한과 함께 협력 논의가 활성화됨
 - 동 방한은 필립 국왕의 과거 1993년, 2000년, 2009년 방한에 이어 네 번째로 아스트리드 공주는 필립 국왕의 특사 자격으로 총 250여 명 규모의 역대 최대규모 사절단과 서울, 인천, 부산을 방문함
 - 양국은 관광·식음료·투자·생명과학·ICT·원자력·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관심 아래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양국 간 대학과 학생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UN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III 진출전략

- 테스트마켓 및 유럽 진출의 관문으로서 FTA, 기술 규제 등 시장의 거시적 흐름과 가격 중시로 소비성향 변화, 신기술 개발 협력 수요 증가라는 미시적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벨기에 지역 SWOT 분석]

<p>강 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과 해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도화된 물류 인프라 • 법인세율 인하 등 투자유치 정책 활발 • 화학, 제약, 바이오 등 중간재 생산에 특화되어 부가가치 위주의 사업 진출 유망 	<p>약 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시장규모 •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성향 • 홍보 및 시장 진입에 오랜 시간 소요 • A/S와 딜리버리가 신속한 유럽 공급사를 선호 (인근국과 교역비중 높음)
<p>기 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 계속 상승 중(한-EU FTA 성숙기) • 최근 구매결정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유럽산 대비 저렴한 가격의 우리 제품에 기회로 작용 	<p>위 험(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일본, 미국 등과 치열한 경쟁 • EU 차원의 자원, 안전, 환경 등 신규 기술 규제들이 지속 추가되고 있어, 우리 기업에 실질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물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인근국으로 공급선을 확대하여 한-EU FTA 효과를 활용	물류활용
ST 전략 (강점 활용)	• FTA 선발주자로 후속 FTA가 체결되기까지 기존 공급망, 고객 관리 철저	고객과 신뢰형성
WO 전략 (기회 포착)	• 한-EU FTA를 적극 홍보하고, 부품사의 경우 물류센터 준비를 통해 A/S에 신속히 대응	한-EU FTA 활용
WT 전략 (위험 대응)	• 신규 규제 도입과 FTA 추진 모두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사전에 취급 품목을 확인하여 미리 대응	사전 모니터링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화학

□ 진출전략

- 벨기에는 대학교 연구실 출신의 중소기업 화학, 바이오 강소기업들이 지역 클러스터 기반으로 분포해 있음. 화학 분야 중소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및 유럽 시장의 상호 진출 또는 제 3국 공동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벨기에 對한 투자유치 홍보대사인 전 Solvay CEO Mr. Christian Jourquin은 2011년 CEO 재직 당시 Solvay의 특수화학 글로벌 본부와 이화여대 R&D 센터 설립을 결정한 바 있음. 그는 한국의 화학산업 인재와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벨기에 화학 분야 우수 중소기업과 한국기업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나. 자동차

□ 진출전략

- 자동차(완제품): 적극적 마케팅 전략
 - 폴크스바겐 사태로 인한 디젤차량 판매위축을 비롯해 저유가 현상으로 향후 벨기에 시장 내 가솔린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솔린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할 것
 - 기아자동차는 한-EU FTA에 따른 관세효과로 관세 절감분을 이용하여 현지 광고 확대, 경쟁사 대비 장기 보증(Warranty), 특정 할인 프로그램 등 적극적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있음
- 자동차부품: A/S 시장 공략
 - 벨기에 내 진출한 자동차 브랜드들은 모두 자체 A/S 서비스 센터를 두거나 현지 정비소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이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자동차 브랜드 지정정비소들은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정비 시, 순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비정품 사용이 가능함(소규모 독립 정비소 시장은 매우 협소하며 이들 가운데 독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사업규모는 거의 없는 실정)
 - 지정정비소는 독자적으로 비정품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순정품을 공급해주는 현지지사나 딜러들을 타깃으로 부품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함

다. 물류

□ 진출전략

-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공급망, 운송망 확보를 희망한다면 고도로 발달한 벨기에 물류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현대 모비스 벨기에 유럽 부품 센터의 경우 벨기에의 지리적 이점 및 물류 인프라를 잘 이용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
 - * 현대모비스는 루멘(Lumen)시에 벨기에 유럽 부품센터를 운영해왔으나 2016년 7월 약 5만 6,198㎡(1만 7천 평) 규모의 중앙물류센터를 벨기에 베링겐(Beringen)시로 이전함
 - 이 중앙물류센터는 관할지역에 AS 부품을 공급하는 일반 물류센터를 담당할 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에 위치한 지역물류센터들로 부품을 배송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맡음
 - * 해상운송 역시 주 2~3회씩 진행해 재고부족 현상 없이 고객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이밖에도, 원가절감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물류비용 절감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2년 주기로 안트워프 시에서 물류운송 전시회(Transport & Logistics)가 개최됨
 - 이 같은 전시회 참여로 현지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임

라. 제약

□ 진출전략

- 세계적으로 의약산업의 메카로 꼽히는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 제약기업의 밀집규모가 상당하나 그와 달리 벨기에, 특히 플란더스 지역은 실험실이나 사무실 운영비용, 임상실험 비용이 경쟁국가들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특히 중소 제약기업에 더욱 매력적임
 - 최근에는 비용이 저렴한 동유럽 국가들도 제약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노하우는 여전히 벨기에가 앞섭.
 - 유럽 제약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관련 기업에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임상실험과 신약 개발의 전문성 및 다양한 R&D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벨기에가 유럽 시장 진출의 좋은 관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진출 전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고 의료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시장동향을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임

마. IT

□ 빠르게 발전하는 IT 시장에 맞춘 신기술 제품 개발 필요

- LoRa 기술이 도입된 다양한 IoT 제품들, 2018년 유럽 B2C 시장 진출
 - 저렴하고 단순한 칩 모듈 설계,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IoT 제품들에 적합하다는 호평을 받아온 LoRa 기술을 도입한 IoT 제품들이 실제 유럽에서 2018년부터 B2C 시장에 진출 예정
 - * 로라(LoRa)란 Long Range의 약어로 대규모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대기 전력이 적고 모듈 가격이 저렴하여 IoT 시장에 적합한 통신망
 - * 로라 얼라이언스에 가입 및 제품을 등록하여 레퍼런스를 갖는 것이 중요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전문 미용사용 헤어브러시	HS Code	96032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3.281	대한수입액('17/US\$백만)	2.813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시장에서 한국산 헤어브러시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정평이 나 있음. 더욱이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중국산 제품 대비 경쟁력을 갖추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동 품목의 벨기에 최대수입국은 중국이고 한국은 2위임. 두 국가가 전체 수입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함 •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은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데 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은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대비 2016년 對한 수입액은 약 16.5%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헤어브러시 제품이 중국산 제품에 비해 다소 고가이긴 하나,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우수성을 나타내면서 對한 수입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 네덜란드, 미국 등이 수입량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각 전체 수입비중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큰 비중을 갖지는 못함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형 중국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이 가장 큰 맹점이라는 현지 대형유통사 O사의 의견이 있음 • 또한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인 만큼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임 		
유망국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전기자전거	HS Code	8711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79.33	대한수입액('17/US\$백만)	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벨기에 전기자전거 판매대수는 총 16만 8,000대로 전년 대비 2만 7,000대가 늘어 19.15% 증가함. 이는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 3위에 해당하며 유럽 전체 판매량의 10%를 차지함 • 네덜란드 GPS 전문기업인 TOMTOM의 세계 각국 교통체증을 분석한 Traffic index에 의하면 유럽에서 벨기에 브뤼셀과 안트워프가 각각 8위와 22위를 차지할 정도로 벨기에 내 교통상황은 매우 혼잡함.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벨기에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될 전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주로 노년층들이 평소 시내 이동이나 산책 등에 자동차 대신 이동 및 주차가 간편한 전기자전거를 이용했다면 갈수록 직장인들이 출퇴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km당 0.23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영향과 지원대상이 기존 제한시속 25km에서 45km 모델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아울러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CO₂ 배출 감소를 위해 중·단거리의 경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임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Decathlon과 같이 중국산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대형매장의 저가제품과 벨기에 E-volt, Ahooga, 영국 Brompton 등과 같은 유럽산 고가제품이 강세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특성이 자전거인 만큼 믿을 수 있는 품질이 기본이 되어야 함 • 저가형 제품의 경우 이미 중국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승부하거나, 제품의 경량화 및 배터리 성능제고, 기차나 차량에 쉽게 들고 탈 수 있는 접이식 자전거 등의 편의성을 구비한다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유망국가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매니큐어	HS Code	33043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6.76(2015)	대한수입액('17/US\$백만)	0.17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이 많이 드는 네일 전문숍을 이용하기보다는 매니큐어 제품을 구입한 후 가정에서 셀프네일을 하는 벨기에 여성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사벨, 랑콤 등 고가 브랜드 위주로 판매되었다면 현재는 저가 브랜드의 매니큐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또한 셀프네일 제품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2018년 벨기에 매니큐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L'oreal, Yves Rocher, Bourjois 등 프랑스산 제품이 다수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산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색상을 보유한 후 진출해야 할 것임 		
	유망국가	벨기에		
가정용 혈압측정기	HS Code	90181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86.52(2015)	대한수입액('17/US\$백만)	5.79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내 고혈압 환자 수가 백만 명에 이르며(10년 사이 약 40% 증가), 벨기에인 중 약 60%가 가정 내 휴대용 혈압측정기를 소유하고 있음 • 현재의 고령화 추세 및 비만,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등의 현대질환들로 인해 향후 벨기에 내 고혈압 환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혈압기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 중 40% 이상이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 검사를 통한 셀프 건강 관리가 주목적임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Braun 및 미국의 lhealth 등이 인기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인 만큼 품질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나 가격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격 대비 품질을 강화해야 할 것임 		
	유망국가	벨기에		
반려동물용품	HS Code	420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35.60(2015)	대한수입액('17/US\$백만)	0.02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소비연구소 Crioc에 따르면, 벨기에 가정의 38%가 반려동물을 보유함 • 어디서든 반려견과 산책 중인 사람들을 보기 쉬우며 작은 슈퍼마켓 체인도 반려동물식품 및 용품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음 • 반려동물시장은 특성상 구매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 용품에 관심이 높아 진입 가능성이 높은 시장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를 병행하며,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벨기에의 대표적인 반려동물용품 유통체인은 'Tom&Co'로 자체 PB 브랜드와 주요 관련기업 용품을 구비함. 그 외 까르푸, 벨레이즈 등 대형 소비자 유통체인에서도 반려동물용품을 취급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의 경우 Royal Canin(프랑스), 미용·액세서리 용품 등의 경우 Julius(헝가리), Trixie(독일) 등 역내기업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내 반려동물용품은 한국에 비해 제품군이 다양하지 못함 •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아이디어 상품을 현지 유통망, 온라인 숍을 통해 노출하고 쿠폰을 활용한 판촉활동 등 초기 정착 시 브랜드 인지도 확립이 필요함 		
	유망국가	벨기에		

게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게임, 태블릿 및 스마트폰 게임 등 한국산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잠재력 유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벨기에에는 게이머 수가 420만 명이며 게임 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3억 3,190만 유로로 전 세계에서 31위를 차지하고 있어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매우 높은 편이며, 계속해서 게임유저가 늘어나는 추세임 4G 통신망의 일반화와 브뤼셀 전 지하철역의 무료 wifi를 비롯한 무료 wifi 보급 확대로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을 이용한 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니, 닌텐도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과 블리자드, 구글 등 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60여개 이상의 현지 게임 개발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벨기에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지어 작업을 통해 게임의 현지화가 필요함
이러닝 플랫폼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영어교육 이러닝 플랫폼의 유럽 내 인지도 상승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rt2Learn, NOW.be, digiTAAL, Webanywhere 등 다수의 벨기에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goda, Berlitz 등 영국, 미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IT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출
LoRa S/W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Ra technology의 전 세계 인지도 및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벨기에 최대 통신사인 P사가 LoRa 테크놀로지 광대역 서비스를 상용화함 LoRa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H/W 제품의 현지 상용화를 위한 S/W 수급 필요성 대두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w.lora-alliance.org에 등록된 다수의 국제 멤버사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Ra 테크놀로지 H/W 제품의 현지화를 가능하게 하는 S/W 개발. 동 기술을 다루는 현지 IT 에이전트사와 긴밀한 기술협력
모바일 결제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모바일 결제가 보급화되어 있는 한국에 비해 벨기에에는 아직 도입단계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3월부터 현지 8만 5,000개 소매점(맥도날드, H&M, 까르푸 등)에서 안드로이드 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애플 역시 벨기에 시장을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모바일 결제 가능 지점이 크게 확대될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genico, Worldline 등 프랑스 대기업이 시장 선두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시장 상용화를 위한 벨기에 IT 에이전트사와 긴밀한 기술 협력
한류 관련(영화, 케이팝, 드라마) 콘텐츠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전역뿐 아니라 베네룩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류 인기와 더불어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유럽 30세 이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케이팝이 서울, 삼성보다 인지도가 높았고 한류 관련 상품은 1위가 음식, 휴대폰, 영화, 드라마 순)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한류 관련 상품과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베네룩스 지역에서는 수요에 비해 한류 관련 상품이나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상황. 특히 벨기에에는 곳곳에서 자생적 커뮤니티 형태의 활동이 있는데 2017년 한국문화원에서 첫 공식적인 행사인 '케이팝 아카데미'를 개최, 성황리에 마쳐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로 자리잡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벨기에에서 유일하게 매년 진행되는 한류 관련 공식 행사는 한국문화원 주체 '케이팝아카데미', '금요한국영화제' 정도이며 한류 관련 상품은 매우 부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가 높은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을 현지 시장조건이나 계약조건에 맞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

한식 도시락 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브뤼셀 내 슈퍼마켓에서 스시, 롤, 마키 등이 간편한 식사대용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이는 건강 트렌드와 함께 아시아 식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익숙함을 드러냄 • 보통 아침은 빵, 점심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간단한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는 현지인들에게 맞춰 간편하고 건강한 한식 도시락을 접근성을 갖춰 판매한다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사이 벨기에 내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Ubereats, Deliveroo, Takeaway 등)가 큰 인기를 구가하며 성장함 • 이는 벨기에인들이 전통적인 식사형태(예약을 하고, 시간 맞춰 식당에 찾아가 3코스 식사를 즐기고 큰 돈을 지불하는 것)에서 벗어나 간편하고 포장 가능한, 단품 위주의, 맛있는 음식을 찾고 있음을 드러냄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브뤼셀에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 스타일 롤 음식점 Makisu의 경우, 여타 다른 일식당과 달리 롤과 마키, 덮밥 세 가지 메뉴만 취급하며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재료와 소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과 운반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음 • 단, 배달서비스를 하지 않아 매장에 항상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대형 유통체인을 통해 스시, 마키 코너에 제품을 판매하는 안, 브뤼셀의 사무실 밀집지역 인근에 테이크아웃 전문 도시락 가게를 여는 안, 푸드트럭을 활용하는 안 등이 가능할 것임 • 현지인 스타일에 맞고 신속한 배달이 용이한 비빔밥, 김밥, 치킨 등 메뉴 개발과 저녁시간과 주말을 타깃으로 한 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함

□ 주요 추진 예정 사업

- 화학산업 비즈니스 포럼
 - 일자/장소 : 2019년 상반기/브뤼셀 내 호텔
 - 참석자 : 벨기에 주요 화학기업 20개사
 - 내용 : 對한 투자여건 안내, 투자진출 상담 등

- 바이오·제약 산업 비즈니스 포럼
 - 일자/장소 : 2019년 하반기/브뤼셀 내 호텔
 - 참석자 : 벨기에 및 한국 주요 바이오·제약기업 30개사
 - 내용 : 세미나, 1:1 비즈니스 상담 등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벨기에 총선	2019. 5. 26	-
EU 의회 선거	2019. 5. 26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uropean Motor Show Brussels 2019	2019. 1. 19~27	모터쇼
Batibouw 2019	2019. 2. 21~3. 3	DIY, 건축 박람회
Seafood Expo	2019. 5. 7~9	수산물 박람회

담당자

브뤼셀 무역관 이윤진
Tel +32(0)205-0089

직책 과장
Email yjlee@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벨기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